

# ①발전위 구성 감독·주제 선정 국·내외 전문가 소통 강화



광주비엔날레재단과 혁신위원회가 24일 시인 공청회를 통해 광주비엔날레의 제도약을 위한 청사진인 '광주비엔날레 혁신안'의 윤곽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구성된 광주비엔날레 혁신위원회는 지난 5개월 동안 10여 차례의 회의와 워크숍 등을 통해 혁신안을 만들었다. 혁신위는 이날 나온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26일 최종 혁신안을 발표한다.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 광주비엔날레 혁신위원회가 이날 내놓은 '광주비엔날레 7대 혁신안'(이하 혁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광주비엔날레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다. 광주비엔날레재단 최고 의결 기관인 이사회 직속으로 '광주비엔날레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비엔날레 감독 및 주제 선정 과정에서 국내 및 지역 전문가, 문화예술인들과 소통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20년 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재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나왔다.

혁신위 강수미(동덕여대 예술대 교수) 공동대표는 이날 공청회에서 "광주비엔날레재단은 그동안 인사, 전사, 사업 운영, 예산과 재원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미비로 논란을 자초한 상황"이라며 "합리적으로 동의할 만한 수준의 정보 공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출자·출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 등 재단을 견제할 만한 근거가 규정이 없었다. 혁신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단이 매년 출자·출연기관에 준해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를 할 것을 혁신안에 담았다. 또 혁신과제의 추진 현황과 실적도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도 혁신안에 포함됐다. 우선 그동안 정책연구실이 제

## '광주비엔날레 7대 혁신안' 주요 내용

- ②정보 공개 인사·예산·사업운영 등 홈페이지 공개
- ③조직 역량 강화 정책연구실 기획 기능 강화
- ④전문성 제고 공무원 파견·당연직 이사 축소
- ⑤지역·대외 소통 국내·지역 작가 양성 위한 '마중물'

## 혁신안 구성에 문화 전문가 등 참여 저조...내일 최종 발표



광주비엔날레 혁신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재단 거시기홀에서 '광주비엔날레 혁신위원회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진단하면서 기획 기능 강화 및 재단의 대외 네트워크 활성화, 현대미술 구조 변동과 경향 분석을 통한 대응 정책 마련, 광주 지역 기반 정기 문화 예술 프로젝트 리서치 등의 업무를 주문했다. 혁신위가 제안한 지역 작가 양성, 직원 재교육 등을 위한 교육부서는 이미 신설돼 운영되고 있다.

또 재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원의 전문성 및 직무 관련성을 제고한 업무 배치,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사업 재평가 및 조정 등에 관한 내용도 혁신안에 담겼

다. 특히 광주시 파견 공무원 축소 및 민간 사무처장제 도입은 재단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를 통해 문화 전문 인력을 사무처장으로 영입하면 대표이사과 이사장이 재단 경영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대신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5명인 당연직 이사를 2~3명 내외로 축소하고 예술과 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 15명 내외로 새 이사진을 구성하게 된다. 특히 분야별 전문

성과 실행력을 기준으로 위촉하고 예술감독 및 정책연구실과 실제적 의사소통 과정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지역 사회 참여 부족한 혁신안 = "제가 아는 한 광주에도 학계, 시민사회, 문화 예술인, 넓게는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광주비엔날레의 미학이나 담론 연구 안 됐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걸 자신들이 왜 하지 않았는지를 반성해봤으면 합니다. 이제는 광주 지역 사회가 나서 광주비엔날레의 생산성을 높이고, 의미를 부여하고, 예술가들이 더 좋은 예술을, 학자들이 더 연구를 해야 합니다."(혁신위 강수미 동덕여대 교수)

지난 5개월 동안 혁신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인,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했던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나온다.

실제 이날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공청회에도 불구하고 재단 관계자와 혁신위원 등을 제외하고는 지역 예술인과 문화 전문가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정송규 무등현대미술관장은 "광주비엔날레는 그동안 너무나도 폐쇄적으로 운영을 해왔다"면서도 "비엔날레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우리(미술인)가 우리 일을 안 했기 때문임을 먼저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2차례 진행된 공청회도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공청회도 발제자들의 의견을 듣는 수준에서 끝났을 뿐 혁신안 작성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이날 열린 마지막 공청회도 혁신안을 마지막으로 다듬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의견들이 제안되지 못했다.

박광성 전 광주시 문화예술과장은 "혁신위가 내놓은 안을 추진하려면 추진 동력과 조직, 인력이 필요할 텐데 재단이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가 궁금하다"며 "재단과 혁신위가 장·단기 과제를 나눠 로드맵을 정리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박진현의 문화카데

'아이 러브 뉴욕'(I ♥ New York) 현대미술의 중심지 뉴욕을 방문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 십번씩 마주치게 되는 슬로건이다. 맨하튼의 대형 간판이나 티셔츠, 심지어 열쇠고리에 이르기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등장'한다.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아이 러브 뉴욕'은 도시 경쟁력을 높인 대표적인 브랜드다. 1970년대 쇠락한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내건 이래 뉴욕커들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심어주는 심볼이 됐다.

뉴욕의 심장인 맨하튼 6번가와 55번가 코너에 가면 '아이 러브 뉴

콘텐츠로 자리잡았다. 맨하튼에 브라이언트 파크가 있다면 광주에는 금남공원(광주시 동구 금남로 3가)이 있다. 하지만 그 위상은 판판이다. 지난 2003년 한 국은행 광주·전남지역본부 상무 지부로 이전하면서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아왔지만 이렇다할 볼거리가 없어 인근 직장인들이 자투리 시간을 때우는 곳으로 인식돼 있다.

어디 금남공원 뿐인가. 문화1번지라고 하는 금남로는 차도와 인도의 기능에 머물러 예방 광주의 심장에 걸맞은 콘텐츠는커녕 연중 '개점휴업'상태다. 게다가 금남로 곳곳에 자리한 대부분의 조각상들

## '아이 러브 금남로!'

육'의 실체(?)를 직접 느낄 수 있다. 팝아트 작가 로버트 인디애나의 설치조형물 'LOVE'다. 빨강색의 단 순한 영문 알파벳 'LO'와 'VE'를 2층처럼 쌓아 올린 이 조각작품은 맨하튼의 아이콘이다. 세계 각국에서 온 연인들과 관광객들은 '사랑이 꽃피는' 조형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안고 떠난다. '아이 러브 뉴욕'과 'LOVE'의 절묘한 조화는 맨하튼의 수많은 예술인 프라와 더불어 문화도시 뉴욕을 받쳐주는 원천이다.

하지만 뒤풀이해도 맨하튼의 숨은 매력은 브라이언트 파크(Bryant Park)에서 만날 수 있다. 맨하튼 42번가에 자리한 브라이언트 파크는 매년 3월부터 10월 말까지 다양한 콘서트와 프로그램으로 일상에 지친 뉴욕커들을 위로한다. 그중에서도 매년 6~8월 추억의 영화들을 상영하는 영화제와 무료로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즐길 수 있는 뮤지컬 갈라 페스티벌, 클래식 썸머 페스티벌 등은 뉴욕을 상징하는

은 특별한 '스토리'가 없는 평범한 모습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광주시가 내놓은 금남로 활성화 계획은 장소성을 고려한 흔적이 보여 반갑다. 청사진에 따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금남로 일대를 빛고을 광주의 상징인 미디어 아트(빛의 거리)로 조성하고 인도 곳곳에 방치된 변입기를 예술작품으로 재활용하는 등 걷고 싶은 명품길로 단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금남로의 쉼터인 금남공원의 활성화 전략은 빠져 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금남공원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단장하느냐에 따라 금남로의 '컬러'가 확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몇몇 하드웨어만으로 직적인 금남로를 단순히 문화길로 변신시킬 수 없다. '지속가능한' 콘서트와 프로그램은 '문화길 금남로'로 가는 첫 걸음이다. 광주가 금남공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편집부장·문화선임기자>

지난달 제9대 광주예총 회장으로 선출된 최규철 회장에 대해 삼급 기관인 한국예총이 잠정 당선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한국예총은 최근 광주예총에 보낸 '광주예총 선거 민원에 대한 당선 보류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총회 대의원 구성에 부적합한 대의원이 의결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점 ▲대의원 수 확정에 있어 광주예총 운영 규정에 불부합된 점 ▲지방법원에 민원이 접수된 점 등을 들어 '당선자 권한 잠정 정지'를 통보했다.

지난 선거에서 최규철 후보는 49표를 얻어 42표를 얻은 임관표 후보를 제쳤다. 하

## 한국예총 "현 광주예총 회장 당선 잠정 보류"

부적합 대의원 의결 참여 등 지적...3월 감사 광주예총, 본부 규정 부합 판단 근거 해명 요구

지만 대의원 구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고 임 후보측은 현재 광주지방법원에 당선인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둔 상태다.

이에 대해 광주예총 등은 한국예총의 결정에 반발하며 당선인 잠정 정지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예총 본부에서 승인해준 운영규정을 사용해 선거를 치렀고 이같은 내용을 미리 본부에 통보했는데도 문제를 삼은 부분, 부적합 대의원이 선거에 참여하고 대의원수 등을 확정하는 데 있어 운영규

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또 결정을 내리면서 감사나 실사를 거치지 않고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점 등을 문제삼고 있다.

한국예총 관계자는 24일 "대의원 구성 등과 관련, 규정과 불부합한 면이 발견돼 올바른 임원 선거가 치러졌다고 보기 어려워 잠정 보류 결정을 내렸다"며 "3월초쯤 실사와 감사를 통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선무효청구소송 재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문화재단 대학생기자단 모집

광주문화재단은 제2기 대학생기자단을 모집한다.

기자단은 지역 대학생 10명 정도로 구성되며 매달 1회 이상 문화예술계 인물을 인터뷰하거나 재단 관련 행사에 참여해 글,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취재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자단에게는 재단이 주최·주관하는 모든 행사의 무료 관람 기회 및 명함과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취

재내용은 광주문화재단 블로그에 게재된다. 대학생 또는 한국어가 능숙한 국내 유학생 중에서 사진과 원고 1인 취재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비슷한 활동 경험이 있는 자는 우대한다.

지원서는 오는 3월 6일까지 접수하며 서류와 면접실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10명을 선발한다. 문의 062-670-7423. /오광복기자 kroh@

#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 홍보지 및 판촉물
- 각종 인쇄물
- 전단지
- 상패
- 현수막
- 각종 인쇄물
- 상패
- 전단지
- 홍보지 및 판촉물



왕인문화기획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udtjs12@hanmail.net

